

President's Message (회장 인사말)

모두들 학교 일정에 다시금 익숙해 지셨기를 바랍니다. 느긋한 여름을 지낸 후 이른 아침과 늦은 밤 숙제에 쫓기는 일상에 다시 적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햇빛 쨍쨍한 날들이 그림긴 하지만 아름다운 오색옷 입은 나무들과 시원한 가을 밤이 기대됩니다.

학생들은 무난히, 그러나 바쁘게 개교 일정을 소화해 낸 것 같습니다. 8교시 활동이 지난 주 시작되었고 모든 특별 활동들이 재개되는 것을 보니 참 기뻐합니다. 홈커밍행사가 올해는 좀 일찍 왔습니다. 모두들 오셔서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홈커밍 행사를 TJ 처럼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특별 행사들을 도와 주신 많은 자원봉사 학부모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PTSA 는 지난 달 무척 분주했습니다. 디렉토리 위원회는 오버타임을 해 가며 일했고, 덕분에 백투스쿨 나잇에서 배부, 혹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이 필수 불가결한 책자를 발행하기 위해 드는 노력은 실로 엄청나고, 거의 모든 자원봉사들이 일년 중 특히 바쁜 시절에 이 일을 해 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 이 일을 해낸 헌신적인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접빈위원회 The hospitality committee는 교사들을 위한 훌륭한 아침 식탁 Faculty Welcome Back Breakfast을 꾸몄고, 참석률이 높았던 9월 PTSA 모임에 디저트를 제공했습니다. 조경landscaping, 프리 머니free money, 재활용, 정부 관계 government relations, 리플렉션reflections, 자켓 판매acket sales, 다양성과 ANGP 위원회들 모두 역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덧붙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들은 학교의 수많은 활동들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 모두들 참가 신청을 위한 싸인 업을 하셨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학교당국과 더불어 어너 가중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PTSA 모임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3백 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불공평한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아이디어와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TJ 를 위해 계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것인데, 왜냐하면 [특수한 학교로서의] TJ 의 임무 수행 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상황의 발전을 모니터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태의 추이를 이메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월에는 2 번의 PTSA 모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 투 스쿨 나잇 오픈 행사로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교장이신 클레이저 박사의 학교의 임무와 예산 문제, 그리고 “학교의 상태”에 대한 짙막한 토의가 있을 예정이고, 그 이후 학부모들은 각자 자녀의 학급들을 찾아 흠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월 19일 오후 7시에는 도서관에서 월례 이사회를 갖습니다. 부디 많이 오셔서 학교와PTSA가 주관하는 이벤트들에 대해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임들에 참석하는 것은 많은 정보를 얻은 유식한, 그리고 참여하는 학부모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새학년도를 훌륭히 시작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마다 우리 가정이 이 학교의 일부라는 사실이 얼마나 행운인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PTSA나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TJ를 사랑할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캐리 킬고어, 학부모교사학생회 회장
Carrie Kilgore, PTSA President

편집자 노트

지난 봄 PTSA 이사회 의 결정에 따라 이번 11월호부터Techcetera 는 우편으로 배달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독자들은 종이자원을 절약하고 온라인으로 뉴스레터를 읽기를 선호합니다. 덧붙여, 인쇄와 우편 배달료를 절약하여 그 비용을 PTSA가 지원하는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온라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뉴스레터가 준비되면 그 내용이 TJ 커뮤니티의 모든 등록된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내질 것입니다

어떤 독자들은 뉴스레터 Techcetera를 종이 버전으로 받아보시길 선호하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학교 사무실에 종이로 된 뉴스레터가 비치될 것이니 언제든지 학생이나 학부모 본인이 오셔서 집에 한 부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뉴스레터에 대해서는, 여러 포맷을 실험해 본 결과, 현재의 2단 포맷이 우리 뉴스레터의 내용과 길이에 가장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으면서 아래 위로 스크롤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으신 분은 컴퓨터 화면을 75% 사이즈로 줄여 읽기를 시도해 보세요 - 돋보기 사용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지만 전체 페이지가 한 화면에 들어가 한 눈에 읽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프린트를 해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게일브로드퓨어러, 로리 다드, TJ PTSA 뉴스레터 공동 편집자

Gail Brodfuehrer, Laurie Dodd TJ PTSA Newsletter Co-Editors
ptsa.newsletter@tjhsst.edu